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예초여행사**  
인국로12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 “팔만사천 법문 세상속으로”

### 대장경 치목에서 제본까지

책은 인류정신의 보고(寶庫)며 계승자다. 그러나 책의 홍수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 책의 출간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책을 만들기도 보기도 힘들었던 옛날에는 책에 대한 자세가 달랐다. 책은 소지하기도 힘들었지만 보물 이상으로 애지중지되어 후손에게 이어졌다.

4월 2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책의 날'. 마침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다. 세계적 문화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1237~1248년 판각)이 만들어져 한글의 책으로 인쇄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새삼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치목·판각·인경·제본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는 치목(治木). 나무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리산등지에 자생하는 산벚나무나 울메나무, 후박나무 등을 골라 삼진감을 통해 납해로 반출한 뒤 바다뽕에 3년을 삭힌 뒤 그늘에서 말렸다(취목·삭임·탈린). 울메나무가 목질이 우수하나 구하기가 어려워 경관의 70% 이상은 산벚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

금구옥연(金句玉言)으로 찬양할 제목감은 직경70cm, 수령 50~60년은 족히 넘어야 한다. 목질이 치밀하고 빈틈이 적은 겨울에 벌목한 나무여야 상품(上品)이다. 또 바다의 파고를 3년이상 견뎌내야 한다. 산나무에 스며든 바다소금의 기운은 쫓을 방지하고 뒤틀림을 막아주어 천년을 견디게 한다.

다음은 대장도감에서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고 아름답게 하는 과정. 고려대장경은 남해의 대장도감 분사(分司)에서 제작됐다는 설이 있다. 그의 강화도 등에서도 제작됐다는 설도 있다.

목재는 가로 70cm 세로 23~24cm 두께 3cm 정도로 절단한 뒤 대패질과 곱질을 했다. 판각장지리에는 손잡이를 부착했으며 네귀퉁이에는 미구리를 대어 경관과 글자를 보호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나라의 목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 인터뷰

김창본·주영자·안준영씨

지난 5·6일 해인사 총재집. 태어난 고려복식의 사람들이 나타나 판각과 인경을 열심이다. 마치 700여년전 고려시대로 되돌아간 착각이 든다. KBS-TV가 초과일에 방영할 '팔만대장경'의 치목부터 사경 판각, 인경, 제본의 전과정을 제작하는 현장이다. 고려인 복색으로 판각과 인경, 제본에 심혈을 쏟고 있는 안준영(41)씨와 김창본(58) 주영자(58)씨 부부를 만났다.

“옛 스님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으로 알았지요.”  
40년 가까이 인경과 제본 일을 해오고 있는 김창본·주영자씨 부부는 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요즈음 세태를 한탄한다.

김씨의 조부는 해인사 강원외의 강사였던 용화스님. 부친인 김삼재씨는 지난 63년부터 5년동안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을 무려 13살이나 해낸

### “고려때 조상의 정성 그대로 재현”

정본인이다. 이때 제작된 책들은 국내 4곳을 비롯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5개국에 보내져 소장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김씨도 교정을 보면서 일을 도왔다. 부인인 주영자씨 역시 25세때 결혼후 시아버지에게 배워 남편과 함께 전통 인쇄 열었기에 매진해 왔다.

“전성기에는 하루에 1천5백장에서 2천장 정도 찍었습니다. 책 10여권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숙달되기까지 세월의 숙련이 필요하다는 김씨는 이일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제본은 하루 제본하는 양이 많아야 10권 정도. 책 1권을 완성하기 위해 30번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3~4일 일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김씨 부부는 실과 바늘관계.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인경·제본일의 호흡이 잘 맞는다. 전통 인경이 사당길을 걸음에 따라 아무도 이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기능이 글길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자신이 만든 책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있다.

각수(刻手) 안준영씨는 구도자의 자세로 판각에 임한다.

“한각각 혼신을 다해 경관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무욕무념이 안되면 하루종일 한지도 새기지 못할때도 있지요.” 그의 작업은 단순한 판자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어 불심을 조각해 내는 것이다. 몸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고려각수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정성을 다한다.

안씨는 대장경판이 보관(補板·수리)될 것에 대비해 남해 관음포의 갯벌에 산벚나무를 달귀 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옛방식 재현에 애쓰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안씨는 현재 PC통신내 각(刻)을 배우는 동호인 모임인 문사모(문화사랑하는 모임) 전문위원으로 대장경의 각문화와 인쇄문화를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다.

이 세 사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해인사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판각 인경 시연’ 행사에도 참여했다. 우리 전통인쇄문화를 이어가는 몇 안되는 소중한 장인들이다.

### 산벚나무 바다뽕에 3년 삭여 사경후 판목에 정성껏 새겨 먹 칠하고 마력으로 문질러 인쇄 쪽 맞춰 면사로 묶으면 경전 탄생

치목은 경관의 수명이나 인쇄의 질을 좌우하므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이다. 둘째 단계는 판각(板刻).

경을 쓴 등을 한지에 필사(사경)한 뒤 판목에 뒤집어 붙인 다음 각수가 글을 새기는 작업이다. 칼만 사용해서 조각하는 법, 칼과 망치를 사용하는 법, 직각으로 새기는 법, 경사지게 새기는 법 등 칼을 쓰는 방법만도 여러 가지. 글자는 판자내의 가로 51cm 세로 22cm 넓이에 1행에 14자씩 23행을 판각하여 한면이 평균 322자를 새겼다. 한 글자만 어긋나도 경판전체가 못쓰게 되므로 판각은 고도의 정성집중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옛날 각수들은 판각에 임하기전, 반드시 목욕재계를 하고 예물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한글자를 새기기전 반드시 1행(1字行)을 했다는 말도 전해내려 온다. 혼신을 다해 조각한 경관의 글자획에서는 기둥과 빛이 느껴진다. 사용되는 글씨체는 주로 구양순체.

판각이 끝나면 셋째단계로 인경(印經). 경판에다 먹칠하고 마력으로 문질러 인쇄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머리털 뽕치를 직사각형으로 묶은 다음 발뽕을 바른 마력은 종이와 상하지 않고 먹뽕이 골고루 묻히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잘린 인경은 글자가 뚜렷하고 먹의 농도가 일정하다. 조금만 흘트려도 글자의 먹농도가 일정치 않아 파지가 나기 쉽다.

마지막 단계는 제본(製本). 먼저 인경된 한지를 접고 포개어 초벌 면단을 네 가장자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 표지를 덮은 다음 다섯군데 구멍을 뚫어 면사로 묶으면 하나의 새 책이 탄생한다. 양 모서리에는 창호지로 배집한 비단조각을 대어 시각적 효과도 높이고 마모성을 방지한다. 책표지를 주황색으로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표지만 붉게 그을리고 내용물은 타지 않았다는 옛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제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축순서를 맞추는 것. 한장을 빠트리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전체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서양종이와 달리 전통 닥종이는 특성상 기계제본이 어려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오늘날에는 인경이 대장경판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커 사진을 찍어 영인인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기계로 만든 책은 한지 생경해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경판을 더 선호하는 형편이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정성을 다해 만든 책은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무게와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하는 사람의 자세 또한 절로 경건해지기 마련이다.

글 : 이윤호 기자  
사진 : 고영배 기자



◇ 왼쪽부터 주영자·김창본 부부, 안준영씨.